

집단따돌림이 피해청소년의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허성호* · 박준성* · 정태연**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 2004년-2007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집단따돌림이 청소년의 자아에 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먼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청소년(N = 292)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N = 230)의 4년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집단따돌림의 빈도에 따라 청소년들을 4개 집단(지속, 간헐, 일회, 무경험)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무경험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자아에 대해 덜 부정적이었고 자아존중감도 더 높았으며, 나머지 세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은 시기에 비해 당한 시기의 자아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모두 부정적으로 변했다. 게다가, 175명(남: 71명, 여: 104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집단따돌림 경험 전후에 따른 자아 관련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집단따돌림 이후에 자아에 대한 태도가 모두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자아존중감도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가 발달적 및 교육적 측면에서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종단연구, 집단따돌림, 자아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강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tjung@cau.ac.kr

I. 서 론

청소년기는 이성 및 동성의 친구들과 좀 더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부모나 다른 어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경제적 자립, 결혼 및 가정생활을 준비하며, 일련의 가치 및 윤리적 체계를 습득하여 이념을 발달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법적으로도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많은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김소야자, 2004), 또래가 늘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사회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여러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46.7%(임동욱, 2000), 강원도 춘천시 56.3%(정지자, 2000), 경남 김해시 30.21%(Park, 2001)의 청소년이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집단따돌림으로 사망하거나 자살한 청소년이 12명에 이르고 있다(조선일보, 2006). 2006년에도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이 39.5%에 달했으며, 응답자의 80.4%가 교내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소년한국일보, 2006. 7. 2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에서도 학교폭력피해자 중 집단따돌림이 3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YTN, 2006. 4. 14). 이러한 보고서들은 모두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집단따돌림은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들은 끈질기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소외시키는 집요함을 보이고, 본인이나 주변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점뿐만 아니라, 문제 청소년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따돌림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장미향, 성한기, 2007). 또한, 중·고교생 집단따돌림 피해자들 중 일부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따돌림을 경험한다는(손향숙, 2005; 이규미, 문영춘, 홍혜영, 1998)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집단따돌림에 대

한 대처가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4년간의 장기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집단따돌림의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집단따돌림이 청소년의 자아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 등 자아 관련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식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폐해에 대해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먼저, 집단따돌림의 개념적 특성을 살펴본 보고, 그 다음에 집단따돌림이 그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집단따돌림이라는 개념은 과거 서구에서 ‘mobbing’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는데, 이 용어는 한 집단이 그 집단의 여러 일반적인 활동과 관련된 과업을 방해하는 특정 개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Heinemann, 1973). 하지만 이후 집단따돌림은 ‘bullying’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에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특정 학생이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Olweus, 1978).

‘bullying’은 따돌림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순 폭행과 구별된다. 유사한 용어인 이지메는 가해자 집단인 경우에 한정하지만, ‘bullying’은 가해자가 집단이나 개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Olweus, 1994). 같은 맥락에서, 한준상(1999)은 집단 따돌림을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명 또는 한명이 약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괴롭히는 모든 부정적인 행동으로 보았다. 또한, ‘bullying’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것은 공개적인 공격을, 간접적인 것은 사회적 괴롭힘이나 의도적인 따돌림을 의미한다(남인숙, 2004).

집단따돌림에는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보다 약한 타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정신적 언어적 물리적인 압력을 포함하고 있다(박경숙, 1998). 이러한 개념 속에는 단지 집단구성원간의 권력 불균형과 지향동기 등의 요소가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이춘화, 1999 참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집단따돌림의 현상으로 직접적인 폭력행동보다는 수동적 공격의 한 형태인 소외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며, 집단의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거나 어딘가 모자라고 약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

하는 경우보다는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구본용, 1997; 박경숙, 1998).

이와 같은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유형의 부정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한 변화에는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을 포괄하며, 이러한 측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서적인 변화는 청소년들의 인지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성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례보고들도 있다(Kaufman, Raphael & Espeland, 1999).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피해 중의 하나가 심각한 정서적 부적응이다. 예를 들면, 이들 피해 청소년들이 전형적으로 경험하는 정서로는 분노, 외로움, 불안, 우울, 무력감 등이 있다(양계민, 정현희, 1999; 이규미 등, 1998).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심각할 경우 우울증, 대인공포증, 자살충동에 이를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10여 년간 수행된 장기 종단적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김윤경, 이옥경, 2001), 또래 집단에 의해 거부되었던 청소년들은 그 이후에서도 심각한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상당 부분이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적응 상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 집단따돌림의 피해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들은 비현실적 사고를 하며,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고 회피적이며,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인다(이규미 등, 1998). 또한, 그들은 주위사람들로부터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양계민, 정현희, 1999), 대인관계에서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이춘재, 곽금주, 2000)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피해자들에게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원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번 공개적으로 집단따돌림 과정이 작용하면, 같이 왕따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위의 다른 학생들은 피해학생과 어울려 지내고자 하지 않는다(이시형, 1998; 이춘재, 곽금주, 2000). 이처럼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집단따돌림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장기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따돌림 경험은 이후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성인이

된 이후의 대인관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chafer et al., 2004).

집단따돌림은 관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과업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학교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과업은 거의 대부분 지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행위이다. 기존의 많은 발달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적인 행위는 정서적인 욕구의 충족 및 안정에 기초한다. 이러한 원리는 비단 아동기나 청소년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시기에 적용될 만큼 보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정서적인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면, 그러한 학생들은 학업동기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학업에 집중할 수도 없다(박영신, 김의철, 2001). 심지어 집단따돌림을 받기 전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성적이 저조하게 되기 쉽다. 장기적인 연구에서도 이들은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또래 집단에게 무시를 당한 아동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취동기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Wentzel & Asher, 1995).

정서적, 사회적 및 과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피해청소년들은 인지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집단따돌림 피해학생들은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박영신, 김의철, 2001), 자기패배적인 사고를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규미, 1998). 또한, 이들은 스스로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평균이하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지적능력이 낮고 무능하며, 매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자신이 괴롭힘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강진령, 유형근, 2001).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성격적으로 유약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며 낮은 자기주장 및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용, 1997).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이와 같은 부정적 특성은 그들의 낮은 자아존중감 때문일 수 있다. 가령,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주장이 약해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배척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들의 낮은 자기주장성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게 하여 쉽게 주위의 공격 대상이 된다(이춘재, 곽금주, 2000). 즉, 피해자는 자기개방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고 요구 할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나약한 학생들이 따돌림을 경험하면서 무기력과 고립이 더욱 가중된다(이시형, 1998). 또한, 이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이미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주눅이 든 상태에 있는데, 이 때 따돌림의 상처까지 안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

적으로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구본용, 1997).

요약하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선, 그들은 부정적인 정서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우울과 불안, 외로움과 고립감과 같은 정서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들은 자지주장능력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와 같은 관계적 측면 이외에 학업과 같은 과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낮은 수행 성적을 보이기 쉽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청소년들은 자신패배적인 사고나 자신의 능력과 매력을 낮게 평가하는 등 인지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다.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부정적 현상의 한 원인이 그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이다. 즉, 피해학생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집단따돌림의 부정적 효과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시기로, 그 변화의 정도나 속도는 성인기나 노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절실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 청소년기의 변화 관련 연구는 일회적 측정법 가령, 특정 시기에 회고적 방법 등을 사용해서 다양한 시기를 측정하거나 동일한 시기에 측정한 변인들을 통계적인 분석으로 원인을 파악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횡단적 설계를 이용해 왔다.

종단적 설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데 시간적 순서(time order)의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태도나 행위의 시간적 변화 유형이나 추세를 파악하고 설명하기가 어렵다(박창남, 김희진, 김선업, 2001). 이러한 점은 집단따돌림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회고법을 통해 집단따돌림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일회적인 측정을 통해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집단따돌림이 시간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했다(연구문제 1).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이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실제 원인인지 아니면 집단따돌림의 결과인지도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연구들에서처럼, 자아존중감 및 기타 변인들을 동시에 측정해서 인과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도(김은정, 김인경, 정태연, 2001)

이미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의 2차 피해행동을 유발하는 예측요인에는 자아존중감과 내현적인 문제행동 수준이 있었다. 실제로 집단따돌림은 피해자에게 거의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시적 측정으로 따돌림 이전의 상태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 피해자들이 매우 단기적인 외상에 노출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 집단따돌림의 특성상 꽤 장기적이고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외상(simple trauma)이라기보다는 복합외상(complex trauma)¹⁾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외상에 노출된 피해자의 경우, 그러한 복합외상은 자기(self)에 큰 타격을 입혀 평소에는 쉽게 바뀌지 않는 정체성이나 자기개념까지 변질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경험적인 연구 예로 허성호, 최진영, 정태연, 2008 참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측면들이 피해자의 장기적인 성격적 결함이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왔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따돌림의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이 정서적, 사회적 및 과업적인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사회적 및 과업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단따돌림이 자아존중감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연구문제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에서 제공하는 종단자료(총 2844명) 즉, 2004년 1차 패널자료부터 2007년 4차 패널자료까지 종단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따돌림이 피해자의 자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집단따돌림을 받기 이전의 자아존중감이 실제 집단따돌림 받은 이후의 자아존중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집단따돌림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결과 및 그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1) Herman(1992)에 이어 Pelcovitz, van der Kolk, Roth, Mandel, Kaplan, 그리고 Resick(1997)은 복합 PTSD의 진단적 기준을 정리하면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극단적 스트레스로 인한 장애(Disorders of Extreme Stress Not Otherwise Specified; DESNOS)”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진단 기준으로는 (1)정서적 각성 조절 기능의 변화, (2)주의력과 의식 기능의 변화, (3)신체화 증상, (4)만성적 성격 특성의 변화, (5)의미 체계의 변화(절망과 무망감)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설정했다. 즉,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면, 자아에 대한 태도(부정적인지, 부정적 정서, 부정적행동)가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다(예언 1). 또한,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면, 그들의 자아존중감은 저하될 것이다(예언 2).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체 284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4년간(2004~2007년 혹은 초4~중1년) 종단적으로 수집한 자료에서 단 한 번도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은 2118명(74.47%)이었으며 726명(25.53%)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듯이, 따돌림을 경험한 726명 중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아 관련 태도 변인들과 자아존중감 변인에 제대로 응답한 292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비교집단으로 집단따돌림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405명의 자료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분포

분류	측정시기				비교집단
	P1 (2004년)	P2 (2005년)	P3 (2006년)	P4 (2007년)	
대상자(N)	152	63	54	23	405

주) 각 측정시기의 N은 그 시기에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사람의 수를 나타냄. 그렇기 때문에, 측정시기 간에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집단따돌림에 대한 경험, 자아에 대한 태도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치를 이용하였다. 먼저, 집단따돌림은 특정 시기에 집단따돌림을 경험했는지

의 여부를 ‘예/아니오’의 반응을 통해 측정하였다.

둘째, 자아에 대한 태도 중 부정적 인지 측면은 자기낙인의식 2문항(예로,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타인낙인의식 2문항(예로,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타인비난의식 2문항(예로,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인식 1문항(나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등 총 7문항으로 리커트형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0이었다.

셋째, 자아에 대한 태도 중 부정적 정서 측면은 신체공격 2문항(예로,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분노공격 4문항(예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불안 2문항(예로,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편이다), 우울 2문항(예로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등 총 10문항으로 리커트형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0이었다.

넷째, 자아에 대한 태도 중 부정적 행동 측면은 이들이 피해자로서 겪게 되는 측면과 이들이 다시 가해행동을 반복하는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자살충동 1문항(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공부부적응 1문항(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 왕따시키기 1문항(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조롱하기 1문항(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협박하기 1문항(다른 친구를 협박(시키는 데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음)하기) 등 총 5문항 중 자살충동과 공부부적응은 리커트형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 두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38 이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은 총 6문항(예로,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으로 리커트형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측정치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6 이었다.

1. 피험자간 비교

(단위: 명)

주) ‘집단’의 유형은 4번의 측정시기별로 집단따돌림을 경험했는지의 여부에 따른 것임. 예를 들어 ‘유유유유’집단은 4년 동안 계속 따돌림을 당한 집단이고, ‘유무유무’집단은 1년차와 3년차에만 따돌림을 당한 집단.

- 288 -

<표 3> 자아 관련 태도에서 부정적 인지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편차()

집단 \ 측정시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평균
무경험	1.85(.57)	1.80(.56)	1.99(.65)	2.01(.66)	1.91(.03) ^a
일회	2.06(.62)	1.98(.61)	2.09(.61)	2.14(.62)	2.07(.03) ^b
간헐	2.20(.60)	2.18(.70)	2.21(.60)	2.31(.58)	2.23(.06) ^c
지속	2.03(.57)	2.38(.75)	2.05(.59)	2.15(.55)	2.16(.11) ^{bc}
평균	1.98(.61)	1.93(.61)	2.06(.63)	2.09(.65)	2.09(.03)

주) 집단 간 사후검증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같은 첨자를 가진 평균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첫째, 자아 관련 태도의 부정적 인지 측면에서 집단 간 및 측정시기별 기술통계치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두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4(집단) X 4(측정시기)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3, 516) = 11.84, p < .001$.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경험집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부정적 특성이 적었고, 일회집단이 간헐집단에 비해 더 낮았지만 이 두 집단은 지속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시기의 주효과 및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자아 관련 태도에서 부정적 정서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편차()

집단 \ 측정시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평균
무경험	2.23(.65)	2.31(.71)	2.41(.74)	2.49(.66)	2.36(.03) ^a
일회	2.51(.71)	2.52(.76)	2.72(.71)	2.69(.77)	2.61(.03) ^b
간헐	2.58(.62)	2.79(.72)	2.82(.80)	2.83(.74)	2.76(.07) ^b
지속	2.52(.76)	3.21(.78)	2.89(.36)	2.77(.72)	2.85(.14) ^b
평균	2.39(.69)	2.47(.76)	2.60(.75)	2.62(.73)	2.64(.04)

주) 집단 간 사후검증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같은 첨자를 가진 평균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둘째, 자아 관련 태도의 부정적 정서 측면에서 집단 간 및 측정시기별 기술통계치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두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4(집단) X 4(측정시기)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3, 518)} = 15.77, p < .001$.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경험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부정적 특성이 적었고, 이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시기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3, 1554)} = 6.80, p < .001$. 피험자내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적인 추세와, $F_{(1, 518)} = 9.85, p < .01$, 2차 적인 추세가, $F_{(1, 518)} = 8.26, p < .01$,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이 두 변인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셋째, 자아 관련 태도의 부정적 행동 측면에서 집단 간 및 측정시기 별 기술통계치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두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4(집단) X 4(측정시기)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3, 516)} = 19.88, p < .001$.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경험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부정적 특성이 적었고, 이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시기별 주효과나 집단과 측정시기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자아 관련 태도에서 부정적 행동 평균과 표준편차

표준편차()					
집단 \ 측정시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평균
무경험	1.35(.33)	1.36(.34)	1.43(.31)	1.48(.33)	1.41(.02) ^a
일회	1.52(.42)	1.51(.42)	1.61(.39)	1.61(.37)	1.56(.02) ^b
간헐	1.58(.44)	1.55(.36)	1.56(.44)	1.71(.40)	1.60(.04) ^b
지속	1.60(.40)	1.83(.38)	1.71(.35)	1.60(.45)	1.69(.07) ^b
평균	1.45(.39)	1.45(.39)	1.53(.37)	1.56(.37)	1.56(.02)

주) 집단 간 사후검증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같은 첨자를 가진 평균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표 6> 자아존중감

표준편차()

집단 \ 측정시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평균
무경험	3.55(.65)	3.55(.72)	3.43(.67)	3.52(.65)	3.51(.03) ^a
일회	3.28(.66)	3.30(.73)	3.23(.66)	3.31(.71)	3.28(.03) ^b
간헐	3.17(.73)	3.19(.81)	3.18(.66)	3.20(.80)	3.19(.07) ^b
지속	3.09(.96)	2.90(.32)	3.15(.68)	3.55(.87)	3.17(.14) ^b
평균	3.38(.68)	3.39(.74)	3.31(.67)	3.40(.70)	3.29(.04)

주) 집단 간 사후검증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같은 첨자를 가진 평균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넷째, 자아존중감에서 집단 간 및 측정시기별 기술통계치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두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4(집단) X 4(측정시기)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3, 518)} = 12.22, p < .001$. 어떤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경험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이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시기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3, 1554)} = 2.71, p < .05$. 피험자내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1차적인 추세는 유의미한 경향이 있었고, $F_{(1, 518)} = 3.18, p < .08$, 2차 적인 추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_{(1, 518)} = 4.23, p < .05$. 그러나 이 두 변인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

2. 피험자내 비교

여기서는 피험자내 비교를 통해 집단따돌림이 자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첫째, 주어진 4년 동안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말하자면, <표 5>에서 ‘유유유무’에서부터 ‘무무무유’에까지 이르는 집단의 구성원들을 선택하여, 각 대상자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했을 때의 측정치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자아 관련 측정치를 단일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³⁾ 이 때 따돌림의 경험이나 무경험이 복수일

3) 이 분석에서는 ‘유유유유’ 집단은 제외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집단은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의 측정치가 없어, 따돌림 여부에 대한 피험자내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우, 비교를 위해 각각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집단따돌림을 3번 경험하고 한 번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3번의 집단따돌림 당했을 때의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검증에 이용하였다.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인지적 측면에서만 따돌림 유무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및 자아존중감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즉,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았을 때 자아에 대해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아존중감도 더 높았다.

<표 7> 측정시기별 따돌림 여부에 따른 측정치의 차이

측정변인	자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자아존중감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따돌림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유
평균 (표준편차)	2.08 (0.46)	2.13 (0.58)	2.62 (0.59)	2.71 (0.68)	1.55 (0.31)	1.63 (0.40)	3.31 (0.54)	3.16 (0.65)
t_{290}	-1.58		-2.40*		-3.35**		4.31**	

* $p < .05$ ** $p < .01$

둘째, 집단따돌림을 당하기 바로 전과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시기에 자아 관련 측정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1차 년도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2차 년도에 따돌림을 당한 75명, 2차 년도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3차 년도에 따돌림을 당한 69명, 그리고 3차 년도에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4차 년도에 따돌림을 당한 31명 등 총 175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따돌림 경험 전후에 따른 피험자내 비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따돌림을 당하기 전의 이들의 자아 관련 특성을 전혀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수자에 해당하는 175명을 무경험 집단에서 무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 각 측정치에 대해서 피험자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집단따돌림 전후에 대한 비교에서 모든 자아 관련 측정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집단따돌

림을 경험한 후의 청소년들은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자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자아존중감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기 전의 이들을 비교집단과 비교했을 경우, 어떠한 측정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그런 경험 이전부터 자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표 8> 자아에 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의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변인	전	후	비교	t(전-후)	t(전-비교)
자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인지적 측면	1.98(.61)	2.37(.59)	2.01(.62)	-7.43**	-.40
정서적 측면	2.57(.78)	2.78(.74)	2.46(.68)	-3.59**	1.38
행동적 측면	1.49(.39)	1.67(.40)	1.49(.33)	-4.68**	.15
자아존중감	3.32(.66)	3.15(.61)	3.40(.67)	3.08**	-1.10

** $p < .01$

I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이 피해청소년의 자아에 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KYPS)에서 제공하는 4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예언한 바를 모두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을 당하면, 자아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그들의 자아존중감도 저하되었다. 뿐만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따돌림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일 가능성도 발견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

먼저, 본 연구는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집단따돌림이 그들의 부정적 자아관에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피해자간 분석과 피해자내 분석 모두에서 나타나는 매우 일관적이고 강력한 현상으로 보인다. 피해자간 분석에서 볼 때, 4년간 따돌림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나머지 집단에 비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도 높았다. 반면, 따돌림을 경험한 집단 간에는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따돌림의 빈도나 지속성보다는 따돌림의 경험 그 자체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음을 함축할 수도 있다. 반면에, 측정 단위를 볼 때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기간 동안의 따돌림은 심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를 야기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피험자내 분석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따돌림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따돌림을 당할 때 자아에 대한 인지적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측정치에서 훨씬 더 불리했다. 또한, 시간적인 차원에 따른 분석의 결과는 피해청소년의 역기능적인 자아가 개인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따돌림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따돌림관련 종단자료에 따른 이러한 결과는 이전에 횡단적인 연구나 일회적 측정에 근거한 연구의 결과들과 일맥상통한다(예로, 박영신, 김의철, 2001; 이규미 등, 1998).

둘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은 피해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이 애초부터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연구들이(예로, 구본영, 1997; 이시영, 1998; 이춘재, 곽금주, 2000) 피해학생의 집단따돌림 유발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집단따돌림을 꽤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괴롭힘의 한 형태라고 볼 때, 따돌림의 피해학생들은 복합외상의 영향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성격적인 측면에서 큰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따돌림의 원인이 그들의 내부적 결함에서 찾아지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피험자간 분석에서 집단과 측정시기 간에는 모든 측정치에서 상호작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에 노출된 청소년은 자아에 대한 태도 및 자아존중감 모두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3-6참조). 나머지 집단은 자아 관련 태도에서 학년이 높아갈수록 완만하게나마 좀 더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에서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보인다. 반면에, 지속집단은 2년차에 모든 측정치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그 후 점차 완화되는 패턴을 보인다. 지속집단이 왜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지 그 원인을 본 연구에서는 규명할 수 없

다. 그들이 지속적인 집단따돌림에 노출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한 대처전략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아에 대한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지각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도 앞으로 규명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피험자간 분석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차이가 자아 관련 태도의 정서적 측면과 자아존중감에서 나타났다. 정서적 측면의 경우, 1차적인 추세가 유의미해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 관련 부정적 정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적인 추세도 유의미했는데,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앞서 언급한 지속집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도 1차적인 추세가 유의미한 경향이 있어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미미한 상태이고, 2차적인 추세가 유의미한 것도 지속집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본 자료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지속집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청소년들에게 초등4학년에서부터 중1까지의 기간 동안 자아 관련 태도나 자아존중감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단자료를 이용하여 집단따돌림이 청소년의 자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명확하게 밝혔다고 할 수 있다. 피험자간 및 피험자내 분석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일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증명했다. 특히, 따돌림의 원인을 피해청소년의 내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내적 특성이 피해청소년 본연의 특성이 아니라 집단따돌림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은 이후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의 결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이나 방안을 다루는 연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이들의 변화 추이를 연구해 볼 필요성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진령·유형근(2001). 집단 괴롭힘. 서울: 학지사.
- 구본용(1997).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 방안. 청소년 상담 문제 연구보고서: 따돌리는 학생들, 따돌림 당하는 학생들.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소야자(2004).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
- 김윤경·이옥경(2001).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 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14권 제2호, pp.65-82.
- 김은정·김인경·정태연(2001).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의 심리적 취약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0권 제2호, pp.245-257.
- 남인숙(2004).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청소년 집단따돌림. 사회이론, 제25권, pp.59-85.
- 남인숙(2008). 따돌림 예방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유용성. 사회이론, 제33권, pp.135-164.
- 박경숙(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신·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7권 제1호, pp.63-89.
- 박창남·김희진·김선엽(2001). 청소년패널조사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01R12.
- 소년한국일보 2006. 7. 23일자(사회) 기사: 초중고교생 10명 중 4명 집단따돌림 경험.
- 손향숙(2005). 집단따돌림 지속의 결정요인-피해 아동의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2권 제3호, pp.223-244.
- 안현의(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6권 제1호, pp.105-119.
- 양계민·정현희(1999).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 피해자,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5권 제2호, pp.91-104.
- 이규미·문영춘·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 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이시형(1998).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서울: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춘재 · 광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춘화(1999). 집단따돌림 예방 및 지도대책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99-R45.
- 임동욱(2000).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대책: 유형별 피해실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향 · 성한기(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1권, pp.77-87.
- 정지자(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연구: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2006. 3. 14일자). “폭력 강간” 학생들은 떨고 있다. 사회 기사.
- 한준상(1999). 학교 내 비폭력문화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99-36.
- 허성호 · 최영진 · 정태연(2008).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 스트레스연구, 제16권 제4호, pp. 379-386.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9, pp.140-153.
- Coie, J. D., Lochman, J. E., Terry, R., & Hyman, C.(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0, pp.783-792.
- Heinemann(1973),
- Kaufman, G., Raphael, L., and Espeland, P.(1999). *Stick up for yourself: Every kid's guide to personal power & positive self-esteem*. Minneapolis, MN: Free Spirit.
- Olweus, D.(1978). *Bullying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Wiley).
- Olweus, D.(1994). Annotation : Bullying at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5, pp.1171-1190.
- Park, M. S.(2001). *A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 and group isolate in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The Inje University of Korea, Busan.

- Schafer, M., Korn, S., Smith, P. K., Hunter, S. C., Mora-Merchan, J. A., Singer, M. M., & Meulen, K.(2004). Lonely in the crowd: Recollections of bully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2, pp.379-394.
- Wentzel, K. R. & Asher, S. R.(1995). Academic lives of neglected, rejected, popular, and controversial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62, pp.1066-1078.
- YTN 2006. 4. 14일자 기사: 학교폭력 중 “왕따” 가장 많아.

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Bullying on the Self-Image and Self-Esteem of Adolescent Victims

Hu, Sung-Ho* · Park, Jun-Seoung* · Jung, Tae-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changes in self-image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exposed to bullying. For the current study, the longitudinal data (2004-2007) from the Korea Youth Panel were analyzed using multi-level modeling. Firstly, a total of 522 data sets (292 from persons who experienced bullying and 230 with no experience of bullying) was selected from the KYPS data pool and analyzed in patterns of self-image and self-esteem. Four groups were formed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experience of bullying (constant, intermittent, once, none). Analyses indicated that the group with no experience were less negative in terms of their self-image and self-esteem than any other group and the other three groups were virtually equal. Second, using a total of 175 data points, we compared before and after bullying experiences in terms of the self-related measures. This demonstrated that bullying exerted detrimental effects on self-image and self-esteem.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s of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Key Words : longitudinal study, bullying, self-image, self-esteem

투고일 : 9월 14일, 심사일 : 10월 19일, 심사완료일 : 11월 16일

*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